



이머징 처치와 미셔널 처치

- 미셔널처치(missional church, 보냄받은 교회)의 신학적 뿌리를 중심으로 -

김원호

본 미셔널 처치에 대한 연구자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기초가 되는 칼빈의 개혁주의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칼빈의 개혁주의를 신학의 기초로 하고 있는 전통적 교회의 입장에서 본 포스트모더니즘에서의 이머징 미셔널 처치에 대한 신학적 고찰”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글은 이러한 입장에서 쓰여졌기에 다소 신학적 보편성이 결여되어있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 글을 본다면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우선 이머징 미셔널 처치를 논하기에 앞서 우리가 이머징 미셔널 처치에 대하여 논해야만 하는 이유 몇 가지를 정리해 보고자한다.

첫째로 현재의 한국교회의 상황은 여러 가지 면에서 혼돈의 한 가운데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교인들의 수적인 감소로 인하여 교회 존립의 위기가 초래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과 대책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기존 개혁주의의 기본적인 틀을 벗어나는 잘못된 대안들이 선택되어지기도 하고 이로 인하여 전통적 교회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근본적인 신학마저도 흔들릴 수 있는 위기 상황이 초래되고 있는 것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쪽에서는 영성을 강조하다가 신비주의로 기울어지는가하면 다른 쪽에서는 성경을 지나치게 상황화(contextualization)하여 해석하다가 이신칭의를 비롯한 구원에 관한 가장 근본적인 교리마저도 폐기해야하는 상황이 초래되기도 한다. 침체의 돌파구를 마련하기위해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새로운 모습들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진단이 있었다면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이번 연구 자료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머징 미셔널 처치에 대한 자료를 정리 해본다.

둘째로는 현재의 문화적 상황을 포스트모더니즘이라고 규정하고서 이에 맞추어 신학도 필연적으로 변화되어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이 모더니즘에서 포스트모더니즘으로 넘어가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모더니즘에서 기반을 이루고 있는 신학이 꼭 포스트모더니즘에 맞추어 해체와 재건의 과정을 거쳐야하는지 점검해 보아야하고 포스트모더니즘의 신학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상황화 된 탈

이 문서는 라브리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은 것으로, 개인 및 그룹 공부를 위해서만 인쇄, 복사, 배포 등이 허가되었습니다.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라브리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This document was downloaded from L'Abri Korea. Printing and distribution are permitted only for study purposes. For all other uses, please obtain permission from L'Abri. L'Abri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document.

보수적인 신학적 해석이 얼마나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또는 과연 문제가 없는 신학인지 점검해 보고자한다.

셋째로는 포스트모더니즘에서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에서의 신학이 어떠한 뿌리를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모습으로 변형된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 가며 이러한 교회(이머징 처치, 미셔널 처치 혹은 보냄 받은 교회)는 기존의 전통적 교회와 어떤 면이 다른지 살펴보고자한다. 다만 이번 논의와는 관계없이 예외적인 형태를 띠고 있으며 보수적인 개혁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포스트모더니즘의 형태인 미셔널 처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팀 켈러의 리더십 장로교회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음 기회에 논의하고자 한다.

넷째로 본 자료의 주요 주제가 미셔널 처치이지만 미셔널 처치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이머징 처치는 무엇이며 이머징 처치와 미셔널 처치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면서 우선 이머징 처치에 대한 간단한 정리와 함께 이 글을 시작하고자한다.

1. 이머징 처치

A. 형성된 배경

이머징 처치는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시대적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해체와 재건이라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기존 전통적 교회의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한 반발에서 출발했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이머징 처치의 주창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일반인들이 예수에 대하여는 관심이 많지만 기존 전통적 교회는 싫어한다는데 대한 고민의 결과로 만들어낸 교회가 이머징 처치라는 것이다.

또한 현재의 전통적 교회는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로부터 시작된 건물 중심의 교회의 특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며 이는 교회가 항상 사회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사회에 절대적 영향을 끼쳐온 형태로 존재해 왔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교회가 더 이상 사회의 중심부에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형태로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이 사회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은 현재의 상황을 후기 콘스탄틴 시대(post-constantinism)라고 규정하고서 현재 대부분의 교회의 기초가 되고 있는 교리가 어거스틴부터 시작된 콘스탄틴시대의 신학(reformed theology from augustinus)이기에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이면서 동시에 후기 콘스탄틴 시대인 현재의 상황에서는 어거스틴으로부터 시작된 개혁주의 신학이 더 이상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서 후기 콘스탄티니즘에 적합한 신학을 만들어 낸 것이 현재의 이머징 미셔널 신학인 것이다.

B. 특징들

이머징 처치는 모더니즘 교회에 대한 해체와 재건을 전제로 시작되는데 이러한 해체와 재건은 단순한 외형의 변화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신학의 변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머징 처치의 실질적인 리더로 활동하고 있는 브라이언 맥클라렌은 기독교 신앙이 포스트모더니즘에 다가

려면 반드시 “재부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포스트모더니즘에 적합한 교회를 만들기 위한 재부팅을 하기 전에 교회의 구성요소 가운데 모더니즘 시대에 침투된 바이러스를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해체와 재건을 전제로 하여 시작된 이머징 처치는 기존 전통적 교회들이 고수해왔던 건물 중심의 제도적인 예배방식을 탈피하면서 포스트모더니즘에 맞추어 감각적이고 직관적이며 신비적인 영성을 추구하게 된다. 또한 성경을 네러티브나 스토리로 봄으로서(툼 라이트는 자신의 저서인 Paul In Fresh Perspective에서 새관점 학자인 샌더스나 던이 한계를 극복할 수 없었던 것은 성경을 네러티브나 스토리로 해석하지 않는 우를 범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성경을 시대적 문화에 맞추어 상황화(contextualization)시켜 해석함으로써 성경을 결코 변하지 않는 절대적 명제(absolute proposition)의 진리로 보는 기존 전통적 개혁주의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성경을 상황화하여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로 보고 있는 칼 바르트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서 칼 바르트의 영향을 받은 레슬리 뉴비긴이나 데이비드 보쉬등에서도 볼 수 있는 경향들이다. 이와 같이 이머징 처치는 단순한 외형만의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인 신학에 변화가 있기에 이머징 처치의 신학은 개혁주의 교회의 신학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성에 있어서는 초대교회에서의 영성을 앞으로 다가올 세대의 영성으로 다시 복귀시키는 고대-미래 영성(ancient-future spirituality)을 많이 사용 한다. 이는 교부시대에 주로 성경을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였던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신플라톤주의로 복귀하는 것이며 또한 성경을 주관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관상기도와 같은 신비주의에 자연스럽게 접목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머징 교회”의 저자 에디 깁스와 라이언 볼저는 이머징 처치는 “툼 라이트의 작업의 틀 위에 세워지는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그만큼 톰 라이트의 신학이 이머징 신학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톰 라이트가 자신의 저서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있다면 “이제까지 우리가 복음을 잘못 이해하였다”이다. 이 말은 이제까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복음이 틀렸다는 것이다. 어거스틴, 루터, 칼빈을 비롯하여 이제까지의 대부분의 신학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어거스틴이나 루터의 경우에는 자신의 개인적인 회심의 경험에 너무 비중을 두고서 성경을 해석함으로써 기독교의 진리가 왜곡되게 형성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툼 라이트의 생각에 절대적 영향을 받고 있는 이머징 처치의 주창자들도 마찬가지로 이제까지의 잘못된 신학을 제거하고 새롭게 새로운 관점에서 시작하여야한다고 기존 교회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것이다.

툼 라이트가 말하는 복음(the good news)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faithfulness) 이루어 가심으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돌이키시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하여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심으로서 이 세상을 회복 시키셨다는 것이다.

툼 라이트가 말하는 복음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전가(imputation)되었던 아담의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고 하나님께서 왕이 되셨다(in and through Jesus, God became King of the world)는 것이다. 여기서 아담의 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가운데 이미 해결 되었기에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imputation)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다. 이는 개혁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인 예수님의 의의 전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으로 새관점이 정통교리와 충돌을 보이는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이다.

이러한 새관점(the new perspective)은 속죄 교리인 개인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에 교회 형태에 있어서도 전통적 교회와 다른 공동체적 구원에 관심을 두는 이머징 미셔널 처치의 교회형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C. 이머징 처치의 특징적 구성요소들

a. 포스트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머징 신학이 형성되는데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대표적인 인물로는 레슬리 뉴비긴(leslie Newbigin)이 있는데 그는 30여년을 인도에서 선교사로 활동하였으며 WCC에서 칼 바르트 라인홀드 니버등이 참여한 25인 위원회의 의장을 맡았으면서 활발하게 에큐메니컬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또한 칼 바르트를 위대한 인물로 평가하면서 칼 바르트가 최초로 사용한 “하나님의 선교”(the mission of God: missio Dei)개념을 포스트모더니즘 신학의 기초로 자리 잡게 한 인물이다. 그 외의 인물로는 칼 바르트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의 선교” 개념으로 페라다임의 변화를 촉구하는 “변화하는 선교”라는 책을 저술한 남아공의 선교신학자 데이비드 보쉬(David J. Bosch)가 있으며 포스트모더니즘을 신학적인 면에서 접근한 인물로는 독일 관넨베르크의 보편사적 신학을 이머징 신학에 접목을 시킨 스탠리 그렌츠(stanley Granz)가 있으며 그는 이머전트 빌리지의 대표리더인 브라이언 맥클라렌에게 친구이면서 멘토로서 절대적 영향을 미쳤다. 그 외에도 윤리적인 면에서는 메노나이트 신학자인 존 하워드 요더(John Howard Yoder)가 있으며 알미니안 신학자인 로저 올슨(Roger Olsen) 등이 있다.

고든 콘웰 신학교 교수인 데이비드 웰스(David F. Wells)는 자신의 저서 ‘용기 있는 기독교’(The courage to be Protestant)에서 포스트모더니즘시대에는 전통과 권위와 권력이 실종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더 이상 교회의 전통이 의미가 없어진 것이며 성직자의 권위도 실종되었으며 교회의 외적인 형태로서의 조직의 힘도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이는 바로 기존 전통적 교회의 기본 틀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구성요소들이 붕괴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붕괴로 인하여 그동안 전통적 교회들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에 위에 열거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모양의 교회를 만들어가며 결과적으로 포스트모더니즘에서의 새로운 교회인 이머징 미셔널 처치의 기본 틀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b. 바울에 관한 새관점(the new perspective on Paul: NPP)

포스트모더니즘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과정인 해체와 재건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 있다면 그건 바로 포스트모더니즘에 필요한 새로운 신학이고 바로 이 새로운 신학이 이전의 전통적 개념과는 전혀 다른 바울에 관한 새관점(the new perspective on Paul: NPP)이다. 이 새관점은 1970년대 중반 샌더스(E.P.Sanders)에 의하여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톰 라이트가 주도하고 있는 새로운 관점에서의 신

학이다. 이 새관점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전통적 개념과는 다르게 해석함으로써 신약을 전부 재해석하는 것이며 그 근거로는 쿠파란문서인 사해사본(Dead Sea Scrolls)외에도 타나임(Tannaim)문헌, 묵시문학(Apocrypha), 위경(Pseudepigrapha)등 성경외의 역사적 자료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토틀라이트는 '역사적 예수 연구'(Quest for Historical Jesus)라는 접근법으로 성경을 해석함으로써 그동안의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하라고 했던 전통적 방법을 탈피한 새로운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함으로써 새관점의 개념을 정립한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예수 연구로 만들어진 새관점은 이성과 자연과학과 소통할 수 있는 보편사적 신학을 정립한 판넨베르크의 신학과도 일맥상통하는 방법론이기에 스텐리 그랜츠에 의하여 도입된 판넨베르크 신학이 새관점과 같은 성격으로 이머징 신학의 기초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새관점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선교적 공동체로 규정하고 율법을 은혜의 상징으로 해석함으로써 WCC가 1952년 독일 빌링겐 총회에서 채택한 "하나님의 선교(the mission of God: missio Dei)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서 WCC의 레슬리 뉴비긴과 데이비드 보쉬와 함께 자연스럽게 포스트모더니즘으로서의 이머징 신학의 기초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새관점이 말하는 주요 특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속죄의 개념

전통적 개념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은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Imputation)된 것을 속죄하기 위한 것인데 반하여 새 관점에서는 이러한 속죄(the Atonement)교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새 관점에 의하면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속에서 이미 해결된 것이고 새 관점이 말하는 죄는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이방 민족들에게 전하여야 하는데 그들이 자신들에게 은혜의 상징으로 주어졌다고 하는 율법을 이방민족과 구별하는 수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이방민족에게 전하지 못한 민족주의가 바로 이스라엘의 죄이고 예수님께서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민족주의적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되었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유월절 만찬과 (죄를 씻어내는 보혈이 아닌)십자가에서의 희생은 이스라엘의 민족주의적인 범죄를 용서하는 화해의 표시이기에 이러한 그리스도의 희생을 믿음으로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는 상징인 것이다.

달리 설명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은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서 죄인 된 우리를 속죄하기 위한 것(의의 전가:Imputation)인데 반하여 새관점에서는 아담의 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가운데 해결된 것(재판장의 선고)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희생되신 것(보혈의 개념이 아니다)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간에 맺은 언약을 이방인에게 전과하여야 하는 선교적 사명을 가진 선교적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음으로서 그 별로서 받고 있는 바벨론 포로생활(토틀라이트는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도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있다)을 청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이 나오는 것은 전가(Imputation)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가 죄인이 된 것은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Imputation)된 것이고 또한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Imputation)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이 되

실 수 있으셨던 것이고 새 관점에서는 전가(Imputation)를 인정하지 않을뿐더러 예수님을 아담과도 연결시키지도 않는다.

결국 새 관점에서는 전가(Imputation)개념을 인정하지 않기에 속죄를 위한 희생이 아담의 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선교적 사명을 다하지 않은 민족적 이기주의에 대한 것으로 봄으로서 이스라엘을 선교적 공동체로 보는 하나님의 선교개념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 율법의 의미

“바울에 관한 새 관점”은 이제까지 전통적으로 바울에 대하여 해석되어오던 것과는 달리 유대인이 율법을 행하였던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함(salvation by works of the law)이 아니고 은혜에 머무르기 위함이었다고 재해석한다. 특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한 바울의 서신서는 이방인들도 이제껏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이방민족과 구별하기 위하여 민족의 상징으로 사용하였던 율법(ethnic badge)이 없이도 예수를 믿음으로 유대인의 언약 공동체에 참여할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설득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한다. 율법을 언약 백성으로서의 은혜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다고 해석함으로써 그동안 자기 의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전통적 해석과 대조를 이룬다.

※ 세례의 개념

전통적 개념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전적으로 부패된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남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상징적인 의식인 것이다. 그러나 새 관점에서는 아담의 범죄의 문제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의롭다고 선언함으로써 해결된 것이기에 세례는 속죄의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에 참여하는 길을 열어놓으셨기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개념보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백성의 공동체 안에 참여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이다.

※ 공동체의 개념

전통적 교회가 말하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나라는 이미 그러나 아직(already but not yet)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 이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수직적인 개념으로서 이 땅에서는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새 관점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the Kingdom of God)가 이 땅에 완전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의한 수평적 개념으로서의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새 관점에서는 이러한 하나님나라의 개념을 공동체의 개념과 연계시키고서 공동체의 수평적 확장을 통하여 하나님나라를 완성시키나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행해지는 세례의 개념은 전통적 개념과 차이가 있는 것이다. 전통적 관점에서는 세례가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의식인데 반하여 새 관점에서는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으로 교회의 개념이 공동체의 개념으로 대체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새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언약백성에 참여함으로써 공동체의 확장을 통하여 하나님나라가 완성되어 간다는 개념이고 이러한 공동체를 교회와 동일한 개념으로 보고 있기에 전통적 교회가 말하는 하나님나라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c. 영성(spirituality)

이머징 처치의 또 한 가지의 중요한 부분인 영성부분에 있어서는 레노바레 운동의 설립자인 리차드 포스터(Richard Foster)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머징 처치는 레노바레에서 리차드 포스터와 동역하고 있는 제자도의 권위자 달라스 윌라드(Dallas Willard)와 함께 관상기도를 비롯한 신비주의적인 요소를 교회의 영성부분에 많이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머징 처치는 초대교회 예배학의 권위자인 로버트 웨버(Robert E. Weber)가 개념을 정립한 “고대-미래”(ancient-future) 개념의 예배와 영성을 도입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관상기도는 성경이 정경으로 완성되기 이전에 주로 성경을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면서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발전되기 시작하였다.

관상기도가 일반인의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리스도의 보혈과 속죄의 개념이 없이도 신적 존재를 경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물론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한 속죄와 칭의에 대한 부담 없이 타종교와 자연스럽게 교류와 대화가 가능하기에 타종교와의 대화의 수단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로마카톨릭의 경우는 1962년부터 시작된 제2차 바티칸공의회에서 타종교와의 대화수단으로 관상기도를 선택하기도 했다.

이머징 처치의 영성에 관하여는 이 글의 방향성과 다른 방향이어서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신비주의와 관상기도라는 주제로 논의가 되어야할 것이다.

2. 미셔널 처치

이머징 처치는 우리에게 비교적 많이 알려져 있는데 반하여 미셔널 처치는 다소 생소한 느낌이 들지만 이머징 미셔널 처치의 시작이 되는 “하나님의 선교”(the mission of God: missio Dei)의 관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미셔널 처치가 이머징 처치의 모체가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볼 때 미션이라는 주제 한 가지만으로는 시대적 문화의 필요성을 다 채울 수 없기에 문화적 다양성을 좀 더 수용하면서 발전되어온 형태가 이머징 처치인 것이다.

미셔널 처치는 포스트모더니즘을 배경으로 하면서도 실제적 동기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유대인학살(holocaust)이라는 비극을 더 이상 막고자하는 동기가 좀 더 큰 영향을 주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주변에 유대인 친구가 많이 있었던 영국의 윌리엄 데이비드 데이비스(William David Davis)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적대적인 관계를 해결하고자 5년간(1942-1947)의 준비를 거쳐 ‘바울과 랍비 유대교’라는 책을 저술하였다.

이는 이머징 미셔널 처치의 신학적 근거가 되는 새 관점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또한 제 2차 세계대전 후 세계교회협의회(WCC)가 1948년에 소집되면서 세계교회의 통합과 교류(ecumenical)라는 목표로 개발되기 시작한 하나님의 선교(The mission of God; Missio Dei)의 개념에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었다.

“하나님의 선교” 개념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선교적 공동체”로 규정함으로써 미셔널 처치의 모체가 될 수 있었고 기독교가 선교적 개념의 공동체가 된 상태에서는 유대교가 자연스럽게 기독교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a. 형성배경

항상 서구 사회의 중심이었던 기독교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사회의 변방으로 밀려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던 사람들이 GOCN(Gospel and Our Culture Network)을 중심으로 모여서 이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대책으로 내놓은 결과로 탄생된 교회가 미셔널 처치이다.

GOCN이 내놓은 “미셔널 처치”의 개념에는 칼 바르트, WCC, 레슬리 뉴비긴, 데이비드 보쉬의 절대적인 영향력이 있었다.

특히 30여년을 인도에서 선교사로 활동하였던 영국 성공회 주교였던 레슬리 뉴비긴의 경우를 보면 포스트모더니즘이 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가 인도에서의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마치고 영국에 다시 돌아왔던 시기의 영국의 기독교 상황은 그야말로 거의 변방으로 밀려나 존립 자체에 위기를 맞고 있는 상태였다.

이에 충격을 받은 레슬리 뉴비긴은 칼 바르트, 라이홀드 니버등이 참여한 WCC의 52인 위원회의 의장으로서 에큐메니컬의 방법론적으로 포스트모더니즘에서의 기독교를 어떻게 확장 발전 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공개적인 토론을 이끌어 내었던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에서의 기독교에 대한 논의가 레슬리 뉴비긴이 몸담고 있었던 세계교회협의회(WCC)를 중심으로 시작되면서 1932년 칼 바르트가 처음 사용하였던 용어인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라는 개념을 1952년 독일 빌링겐(Willingen)총회에서 모여서 에큐메니컬을 위한 구체적인 교회의 방법론으로 채택하였던 것이다.

그 후 역사적 예수 연구(Quest for Historical Jesus)와 바울에 관한 새 관점(NPP)등 여러 가지 신학적인 발전과 보완 과정이 있는 후 최근에서야(1990년대) 좀 더 체계적으로 미셔널 처치의 개념을 정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미셔널 처치의 "하나님의 선교" 개념이 힘을 얻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기존 개혁주의의 전통은 이전 시대인 모더니즘에서의(christendom) 신학이고 권위와 권력과 전통이 사라진 포스트모더니즘(post-christendom)에서는 더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인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선교 개념으로 형성된 교회론 만이 포스트모더니즘에 적합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서구사회에서의 기독교의 위기를 잘못된 교회론에 있다고 진단한 것이다. 즉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의 수단이면서 동시에 세상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과정이 되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신앙의 최종 목적이 된 결과로 말미암아 교회의 부패와 변질이 생겨났고 이로 말미암아 교회의 몰락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일단 수단과 과정이 아닌 목적이 된 교회는 포스트모더니즘으로 인한 문화의 급격한 변화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쇠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에서의 문화는 더 이상 교회를 중심으로 움직여주지 않기에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

서는 미셔널 처치와 같이 문화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교회론 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선교 개념은 바로 여기에 가장 적합한 개념이라는 것이다.

미셔널 처치 주창자들은 교회가 사회의 중심이 되었던 건물 중심의 교회 (christendom:AD313~최근)의 시기는 이제 끝난 것으로 간주하고 지금을 후기 기독교사회(post-christendom)로 봄으로서 앞으로 새롭게 등장하여야 할 교회는 건물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침투적으로 들어가는 선교적 이면서 성육신적인 교회가 되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b. 미셔널 처치의 개념

GOCN이 새롭게 교회론을 정립하기 위하여 채택한 “하나님의 선교” 개념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를 선교적인 관점에서 해석하여 (a sending or missionary God) 정의하고 있다. 즉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의 보내시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교회를 이 세상에 보내신다는 개념으로 교회를 선교적인 하나님의 개념에서 유래된 세상에 보냄 받은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로 정의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개념에서는 교회는 목적이 될 수 없고 이 세상에 보내지는 과정이 되어야만 하며 보냄 받았다는 의미에서 즉 교회는 목적이 될 수 없고 이 세상에 보내지는 과정이 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미셔널 처치라는 용어 대신에 보냄받은 교회(sending church)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하고 선교적으로 해석된 삼위일체 개념에서 삼위일체적 교회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한다.

또한 세상으로 보내지는 우리 자체가 교회(being the missionary)이기에 우리가 교회에 간다(going to church)는 개념은 christendom의 유산으로서 잘못된 개념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전통적 개념의 교회가 아무리 선교에 역량을 집중한다 하더라도 미셔널 처치가 될 수가 없고 단지 선교에 집중하는 (mission focused)교회가 될 뿐이기에 교회 자체가 세상 속으로 보내져야지만 (Unchurched church)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 전통적 교회는 건물로 상징되는 외적인 형태의 구심점을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attractual church)라고 하며 이에 반하여 미셔널 처치는 세상을 향하는(extractional) 원심력을 가지고 성육신적으로 보냄을 받았다고 하여 성육신적 교회(incarnational church)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머징 처치의 저자인 댄 김벌에 따르면 미셔널 처치는 “주일뿐만이 아니라 평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받으며 (세상 사람들과)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격려하고 가르치는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보냄 받은 무리들”이라고 정의함으로써 세상 속으로 보냄 받은 성육신적 교회의 속성을 그대로 표현 해주고 있다.

c. 특징들

첫 번째로는 기존 건물 중심의 조직화된 교회들과는 달리 세상 속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식을 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모임을 만들어가며 일정한 외형이 정해진 것은 없다. 모이는 형태에 있어서는 주일의 개념이 없으며 주일보다는 평일에 자유롭게 주로 생활의 영역(unchurched venue)에서 모인다. 또한 클럽이나 스포츠센터등 활동의 영역에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이머징 처치의 특징인 고대-미래 개념의 영성을 적용하기도하고 향(incense)과 미로걷기를 예배의식에 사용하기도 한다.(영국의 mission-shaped church인 Fresh expression group의 경우 새로운 수도원적 삶(new monasticism)이 적용되는 고대-미래의 영성을 홈페이지에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전통적 교회가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인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믿는 삶에 초점이 맞추어져있는 것(missional church에서는 이를 old perspective라고 함)과는 대조적으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 기초한 제자도적인 실천적 삶을 강조한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충성하셔서 이 세상에서 성육신의 삶을 사신 것과 같이 우리도 세상으로 보냄을 받으며 예수님께서 충성하셨던 모습을 본받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같은 충성된 모습으로 제자도의 삶을 이 세상에서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에수를 믿는(Faith in Jesus)것에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충성(faithfulness of Jesus)을 본받아 따르는 것으로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새로 오는 교인들에게 이전(old conventional role)과는 달라진 신학의 변화(theological shift)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요구되고 있다. 미셔널 처치는 구성원들에 대한 제자 훈련을 통하여 공동체 확장을 위한 리더들이 양성되어야만 공동체가 확장되며 지속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 오는 구성원들에게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이론적 틀(the new community paradigm)에 대한 교육을 하여야하며 훈련을 통한 제자도의 삶을 가르쳐야하는 것이다. 미셔널 처치에서 제자도에 대한 훈련은 공동체의 존립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인 것이기에 항상 강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네 번째로는 신앙의 중심이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향하여 있다. 미셔널 처치에서의 영성이 개인보다는 관계성에 향할 수밖에 없는 것은 공동체의 확장이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구원을 개인의 관점에서 다루는 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데서 비롯되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히려 구원을 개인이 미셔널 공동체(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다섯 번째로 영성은 개인을 위한 자아개선이나 영적 제자도, 개인적 헌신의 삶이 아니고 이 세상을 위해서 성령에 의해서 공동체적 믿음을 형성해가도록 에수를 닮아 가며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영성의 터전은 콘스탄틴시대의 산물인 전통적 교회와 같이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장소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성전이셨듯이 삶의 현장에서 만들어지는 움직이는 곳(temple spirituality)에서의 영성이라는 것이다. 다른 표현으로는 신앙의 중심이 외적 건물로 이루어진 기존 교회가 아니라 삶의 현장이 바로 교회고 성전이라는 것으로서 예배와 영성에 있어서 무교회(Unchurched)의 개념을 적용시키고 있다.

d. 이머징 처치와의 연관성

이머징 처치의 리더인 브라이언 맥클라렌에 의하면 “이머징 처치와 미셔널 처치는 본질적으로 같다”고 보면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머징 처치가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문화적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좀 더 광범위한 다양성을 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교회를 추구하고 있는 반면 미셔널 처치는 선교라는 실천의 형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형태인 것이다. “이머징 처치” (emerging church) ”

이머징 예배“(emerging worship)의 저자인 댄 김벌은 이머징 처치에 깊이 관여하여 활동하고 있는 (Vintage Faith 교회의) 목사로서 또한 미셔널 처치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으면서 이 둘을 구분하지 않고 이머지셔널 처치(emergissional church)라고 부르기도 하고 영국의 미셔널 처치(mission-shaped church)인 프레쉬 익스프레션(fresh expression group)의 경우는 활동 영역이나 예배 형태에 있어서 전형적인 이머징 처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머징 처치의 경우 이머전트 빌리지(emergent village)의 선두 리더인 브라이언 맥클라렌이 본인 스스로 톰 라이트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지만 미셔널 처치에서는 톰 라이트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거의 없을 정도로 톰 라이트의 새 관점을 그대로 실천에 옮기고 있다.

다만 외형적으로 미셔널 처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팀 켈러(Tim Keller)목사의 뉴욕 리더머 장로교회(Redeemer Presbyterian Church)는 비록 개혁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운용되고 있지만 교회 형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선교” 개념을 적용하고 있기에 어쩔 수 없이 톰 라이트에게서 자유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e. 미셔널 처치운동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단체들

1. Organic church (www.organicchurch.com)
2. Communitas (www.communitas.org)
3. 3DM (www.weare3dm.com)
4. fresh expression (www.freshexpressions.org.uk)
5. friend of missional (www.friendofmissional.org)
6. Missio Dei Communities(www.missiodeicommunities)

3. 이머징 미셔널 처치에 대한 신학적 고찰

미셔널 처치를 개혁주의를 바탕으로 한 전통적 교회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몇가지 주된 개념을 중심으로 개혁주의 교회와 어떻게 다른지 논하고자한다.

a. 하나님의 선교(Mission of God: Missio Dei)

“하나님의 선교” 개념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신학인 “바울에 관한 새관점(NPP)”이나 이머징 미셔널 신학의 출발이 되는 기본적인 뿌리가 되는 개념으로서 이전에 1600년 가까이 발전되어왔던 개혁주의 신학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며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에 대한 이해 없이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탈보수적인(Postconservative) 신학을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는 1932년도에 칼 바르트에 의하여 처음으로 소개되었고 1952년 WCC의 독일 빌링겐(Willingen) 총회에서 에큐메니컬을 위한 방법론으로 채택되어 레슬리 뉴비긴과 남아공 선교 신학자인 데이비드 보쉬에 의하여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것이다. 최근에는 크리스토퍼 라이트(Christopher J. H. Wright)의 저서인 "하나님의 선교"에 의하여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

지게 되었다.

“하나님의 선교”는 선교의 주체가 교회가 아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보고서 삼위일체의 개념을 선교적인 관점에서의 삼위로 보며 교회를 선교의 수단이며 과정으로 보고서 교회 대신에 세상을 선교의 최종 목적지로 보고 있다. 즉 교회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교” 개념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방 민족에게 전해야 할 선교적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언약을 맡은) 최초의 선교적 공동체(missional community)로 보며 구약을 선교적 관점에서 해석함으로써 신약에서의 예수님과 바울을 개혁주의와는 다르게 새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새 관점(NPP)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죄는 바로 이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음으로서 이에 대한 징계로서 바벨론 포로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며 이 바벨론 포로생활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셨던 시기까지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예수님의 사역을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생활과 연계 시키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러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것 뿐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로마의 황제를 왕으로 섬기고 있던) 이스라엘의 죄악을 감당하시고자 십자가에서 (정치적으로) 희생당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죽으셨던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왕이 되었다는 것이다.(God became King; 톰 라이트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 개념에는 하나님이 현세적으로 왕이 되셨다는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개혁주의에서는 원래 하나님이 왕이셨지 왕이 되셨다고 해석하지 않는다. 톰 라이트는 하나님 나라-the Kingdom of God-의 개념을 현세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의 논리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은 개혁주의 신학과 많은 부분에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닌) 십자가에서의 희생은 우리에게 전가된(Imputation) 아담의 죄를 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아담의 범죄는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심으로서 해결되었다는 것이다. 우리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한 의의 전가(Imputation)에 의한 것이 아니고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무죄선고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다. 단지 예수님의 희생은 이스라엘의 민족적 이기주의(선교적 사명을 외면, 은혜의 율법을 이방인과의 구별수단으로 사용, 로마황제를 섬기는 것 등)로 포로 생활하는 것 등을 용서하신다는 것이고 이러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다 표현하셨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하여 중단되었던 이스라엘의 선교는 계속될 수 있었고 바울의 서신서들은 이방인을 이스라엘 선교적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유대인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기록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바울에 관한 새 관점”(NPP)으로의 해석은 현재의 미셔널 처치가 성립될 수 있는 근거이기에 미셔널 처치에서의 새 관점은 바로 미셔널 처치의 기본적인 뿌리가 되는 것이다.

톰 라이트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은 “역사적 예수 연구”(Quest for Historical Jesus)라는 방법을 통하여 주후 1세기의 제2성전 유대교를 선교적 공동체로 해석함으로써 가능했던 것이고 이는 “하나님의 선교” 관점에서 보는 유대교에 대한 해석과 일치점을 보이고 있는 것이

다.

WCC에서 레슬리 뉴비긴을 중심으로 개발된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을 GOCN에서 수용하고 정립하면서 미셔널 처치라는 교회론을 만들어 내었기에 이스라엘을 선교적 공동체로 해석하고 있는 새관점(NPP)이 자연스럽게 미셔널 처치의 신학적 기반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다.

또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 “하나님의 선교” 개념에서의 새관점(NPP)으로는 신약에서의 교회(missional church)를 언약공동체인 유대교의 연장선상에서 본다는 것이다. 즉 신약의 교회 형태인 미셔널 처치가 이루는 공동체(missional community)가 구약에서의 최초의 선교적 공동체(missional community)인 유대교와 같은 선상에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2000년 가까이 신약의 교회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유대교와 유대인에 대한 적대적 감정이 잘못된 것이었고 또한 히틀러가 범한 유대인학살(Holocaust)도 성경을 잘못 해석하였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는 것이다. 이는 톰 라이트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인 “우리가 이제껏 성경을 잘못 이해하였다”라는 말로 함축할 수 있을 것이다.

제 2차 세계 대전 중 영국의 윌리엄 데이빗 데이비스(William David Davis)는 주위에 절친한 유대인 친구들이 많이 있었기에 전쟁 중 유대인 학살을 보면서 유대인들의 희생은 잘못된 신학에서 비롯되었다는 생각으로 5년간(1942-1947)의 집필과정을 거쳐서 “바울과 랍비 유대교”라는 책을 저술하게 되었고 이는 기독교를 유대교의 연장선상에서 재해석한 것으로서 새관점(NPP)의 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하나님의 선교의 개념에서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사실은 종교개혁의 핵심 주제였던 칭의(Justification)의 개념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칭의론”의 저자인 알리스터 맥그레스에 의하면 칭의 교리는 지난 16세기 동안 서구교회의 균열을 만들고 이 균열을 지속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후부터는 에큐메니컬 운동의 등장과 더불어 더 이상의 교회 분열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에 교회 분열의 핵심이 되었던 칭의 교리를 자연스럽게 배제시키는 쪽으로 교회와 신학의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고 최근에는 WCC에서 더 이상 칭의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선교”개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구속사역과 더불어 형성된 칭의 교리”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이기에 칭의 교리를 배제시키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선택되어질 수밖에 없는 개념인 것이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서만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칭의 교리는 율법을 자기 의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유대교와 대립될 수밖에 없기에 칭의 교리가 배제된 “하나님의 선교” 개념의 탈보수주의 신학만이 자연스럽게 유대교와 접목될 수 있는 것이다.

율법을 은혜의 상징으로 해석하는 “바울에 관한 새관점”을 기초로 하여 이스라엘을 최초의 선교적 공동체로 보는 미셔널 처치는 유대교와 기독교를 대립관계가 아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하나의 연결된 공동체로 보는 관점이기에 인류의 더 이상의 갈등과 분열을 막고자하는 WCC의 “하나님의 선교” 개념이 결실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b. 새로운 관점

미셔널 처치는 지금의 포스트모더니즘 문화가 크리스텐덤(christendom) 이후의 상태에 있다고 전제하고서 지금의 크리스텐덤의 교회형태로는 더 이상 기독교의 존립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서 기존 로마 카톨릭이나 개신교의 신학적 관점과는 전혀 다른 제 3의 신학적 관점을 도입하여 형태를 갖추어가고 있는 것이다.

미셔널 처치 주창자들은 포스트모더니즘의 기본정신인 해체와 재건에 가장 적합한 신학으로서 “바울에 관한 새 관점”(the new perspective on Paul: NPP)"을 선택하였는데 이는 어거스틴으로 부터 시작된 개혁주의 신학과는 전혀 다른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앞으로의 세대(for the age to come)에 가장 적합한 복음주의 신학이라는 것이다.

미셔널 처치운동의 중심인물인 “새로운 교회가 온다”(the Shaping of Things to Come)의 저자인 마이클 프로스트(Michael Frost)는 자신의 저서(the road to missional)에서 미셔널 처치 운동은 새관점 신학자인 톰 라이트의 작품 위에 세워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머징 미셔널 처치의 기본 신학으로 사용되어지는 새관점(NPP)은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 하였던 전통적 방법과 달리 “역사적 예수 연구”라는 방법을 사용하였기에 학문이라는 관점으로서의 신학이면서 동시에 이성과 자연과학과의 소통이 가능한 형태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역사적 예수 연구”라는 방법론은 신앙을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접근 방식으로서(이성적으로 설명이 되면 더 이상 신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실존주의 신학자(칸트, 헤겔, 키에르케고르, 바르트, 블트만 등)들과 맥락을 같이 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역사적 예수 연구의 초창기 주창자였던 슈바이처와 블트만은 물론 실존주의 신학자인 칼 바르트에게서 받은 영향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예수 연구”의 방법론은 우리가 하나님과 성경을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있다면 신앙을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논리이지만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없었다는 사실을 간과한 인간적인 생각이라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논리인 것이다. 즉 불신이 바탕이 된 신학적 논리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머징 미셔널 처치는 이전의 전통적 해석과는 전혀 다르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성경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역사적 예수 연구”라는 방법을 채택함으로써 또 다른 형태의 자유주의(신자유주의: neoliberalism)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이다.



(출처: <http://www.postost.net/>)

이와 같이 “역사적 예수 연구”라는 방법의 결실로 만들어진 새관점(NPP)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교회의 형태를 만들어낸 결과가 바로 현재의 이머징 미셔널 처치의 모습이고 새 관점으로서의 선교적 신학(the missional theology)은 앞의 그림과 같이 기존의 개혁신학과는 전혀 다른 출발점을 갖고서 다가올 세대의 복음주의 신학으로 자리를 잡으려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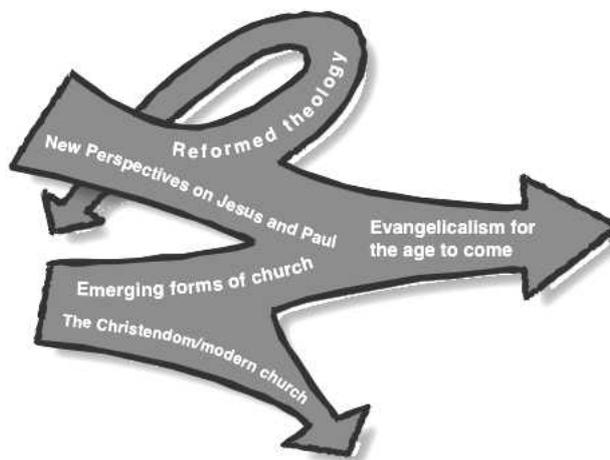
NPP의 대표적인 인물인 톰 라이트(N.T.Wright)를 복음주의 신학자라고 칭할 때의 복음주의는 개혁주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용어이며 톰 라이트가 복음주의자라는 칭호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톰 라이트 이전에 “역사적 예수 연구”를 하는 신학자들이 대부분 성경을 부인하였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톰 라이트는 성경을 확고히 세웠던 학자였기에 붙여진 칭호인 것이다. 하지만 톰 라이트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전혀 복음주의가 아닌 자유주의의 형태를 갖추고 있기에 그에게 일방적으로 복음주의자라는 칭호를 사용하는 것은 다소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c. 대연합(the great convergence: the emergency and the new perspective)

현재 영국에서 missional community 운동을 하면서 다가올 세대의 복음주의 신학(an evangelical theology for the age to come)이라는 사이트(<http://www.postost.net/>)를 운영하고 있는 Andrew Perriman에 의하면 앞으로의 교회는 성경이 재해석된 새 관점(the new perspective)을 기초로 한 이머징 미셔널(emerging missional praxis)운동이 기본형태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missional church의 시작은 NPP와 상관없이 WCC를 중심으로 레슬리 뉴비긴과 데이비드 보쉬의 영향 하에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새 관점을 WCC와 직접적으로 연결시킬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선교라는 기본 틀이 같다는 점을 살펴보면 새 관점이 자연스럽게 미셔널 처치의 기본 신학으로 자리매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음 그림이 이를 요약해서 잘 보여주고 있으며 이머징 미셔널 처치의 주창자들은 앞으로의 세대에서는 기존의 개혁신학과 전통적 교회가 소멸되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출처: <http://www.postost.net/node/338>)

앞의 그림과 같이 새관점과 이머징 처치의 연합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복음주의(?)의 출현이 의미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개혁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한 현대 교회의 퇴출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이러한 형태의 새로운 교회가 전통적 교회와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이와 같은 신학과 교회의 변화는 다소 후퇴되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정립되었던 보수적인 신학이 앞으로는 역사적 시각에 맞추어 새롭게 정립된 새 관점으로 바뀌어질 것(Question 1)과 이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이머징 신학을 통한 변화(Question 2)를 수반하면서 중국에 가서는 이머징 미셔널 처치의 실천적 교회형태인 미셔널 처치 운동으로 귀착된다는 것이다.



(출처: <http://www.postost.net/node/353>)

또 다른 방법으로 설명되는 위의 그림은 성경을 네러티브로 보고서 이를 역사적 상황에 맞추어 (contextualization) 새롭게 해석한 새관점(NPP)에 이머징 신학을 접목시킴으로서 이머징 미셔널 운동 (emerging and missional praxis)이 탄생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는 이머징 미셔널 처치는 교회의 형태적 변화보다는 신학의 변화에 핵심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에서의 교회라는 이머징 미셔널 처치의 표면적인 명분은 현대교회가 사회에서의 영향력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교회가 성육신적(incarnational)으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좋은 성경적 명분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는 실제의 내용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관점과는 전혀 다른 신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에 결과적으로는 전통교회를 더욱 허물어뜨리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d. 모이는(Attractional)교회 vs 성육신적(Incanational)교회

미셔널 처치가 전통적 교회와 구분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의 외적인 형태가 바로 모이는 형태의

교회나 아니면 성육신적으로 세상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교회나 일 것이다.

미셔널 처치의 주창자들은 교회가 세상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것은 포스트모더니즘에서 교회의 존립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방법론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질적 근거로는 포스트모더니즘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개념에 의하여 변화된 교회론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만약에 기존의 전통적 교회가 미셔널 처치의 형태와 같이 세상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성육신적 교회의 형태로 변화를 추구한다면 이는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상황적 대처가 아니라 WCC의 “하나님의 선교”논리를 수용하는 것이며 동시에 새 관점(NPP)으로의 신학의 변화를 수반하는 과정이 되는 것이기에 이는 앞부분에서 논의한 대연합(the great convergence)의 과정에 돌입하는 것이며 개혁주의를 기초로 한 자신의 이전 모습과는 대립되는 형태로의 변화를 수반하는 것이다.

혹은 교회 성장을 위한 대안으로서 미셔널 처치로의 전환이 선택되어진다면 미셔널 처치의 속성인 무교회주의(Unchurched church)로 인하여 교회를 해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해체의 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육신의 의미를 선교적 관점에서 부분적으로 잘못되게 해석하였기 때문에 가져온 결과일 것이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선교적 관점보다는 구속 사역을 위한 피 흘림이 중심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아담의 죄로 인하여 인간의 육신이 죄에서 자유 할 수 없었기에 구속사역을 위한 예수님의 성육신은 필연적인 과정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구속사역의 개념이 적용된 성육신이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구속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에 성육신적으로 세상에 들어간다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또한 성육신적 교회(incarnational church)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말한 요한복음 20:21의 한 구절은 구속사역의 확장을 위한 것이지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는 공동체의 확장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이 수반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복합적인 과정은 생략하고 다만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라는 논리에 부속품처럼 말씀을 끼워놓고 있는 것이다.

베드로의 경우를 살펴보면 그가 예수님과 같이 많은 시간을 보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의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성령을 받고 거듭나는 과정이 없었던 때문이고 그가 성공적인 제자도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을 받고 거듭날 수 있었기에 가능하였던 것이다.

요20:21절에 이어서 따라오는 말씀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신 후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미셔널 처치의 신학적 기초를 형성하고 있는 새관점에서는 성령에 의한 거듭남보다는 윤리적으로 회개하는데 비중을 두고 있으며 회개하여 하나님의 공동체에 참여한 후에는 훈련과 연습을 통하여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윤리적 제자도의 삶을 강조함으로써 성령이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원인과 동기가 되신다는 개혁주의적 사상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성령은 우리의 삶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이시지 단순히 우리가 주체적으로 살아가는데 있어서 힘을 실어주는 수단이 되실 수 없는 것이며 우리가 주체가 되는 사역은 성령의 사역이 아니며 또한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고 사람의 일일 뿐인 것이다.

결론적으로는 세상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성육신적 삶은 우리의 논리에서 나오는 것이지 결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삶은 아닌 것이다.

e. 죄의 인식

인간이 죄인이 아니라면 기독교 자체가 필요치 않을 것이지만 인간이 어떠한 상태의 죄인이냐에 따라서 기독교 교리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새관점이 개혁주의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죄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출발한다.

개혁주의에서는 인간이 아담의 죄로 인하여(죄의 전가)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이고 예수님께서서는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의의 전가)는 것이다.

반면에 새관점에서는 아담의 죄로 인한 인류의 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가운데 이미(선언에 의하여)해결된 것이고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언약을 맡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방인에게 전하지 않고 자신들의 욕심에 의하여 은혜로 주신 율법 특히 음식법, 할례법, 절기법 등을 이방인과 구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며 로마 황제를 우상으로 섬기는 죄를 범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도 똑같이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혁주의에 의한 죄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에 거듭남을 통해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하는 반면에 새관점에 의한 죄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아니기에 거듭남의 개념보다는 회개의 개념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예수님을 본받는 제자도의 삶을 살아감으로서 윤리적인 개념으로 하나님나라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다.

이렇게 죄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인하여 교회 공동체에 대한 개념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전통적인 관점에서의 교회는 아담의 범죄로 인한 원초적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씻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무리의 형태이지만 새 관점에서 말하는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속죄하심으로 세우신 교회가 아니라(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방나라에게 전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이와 더불어 주어진 율법을 민족주의적으로 이방인과 구별하는 수단으로 사용한 죄로 인하여 바벨론 유수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의 선교적 언약공동체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용서되어서 우리에게까지 문이 열리게 되었기에 이러한 그리스도의(보혈의 개념이 아닌) 십자가 희생을 믿고 공동체에 참여하는 의식인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공동체의 일원이 된 무리들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서 엄밀히 말하면 교회의 개념보다는 공동체의 개념이 적용되며 이방인과 유대주의를 하나의 공동체로 보고 있는 것이다.(새 관점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스라엘의 민족주의적인 죄로 인한 바벨론 포로생활을 청산시키는 용서와 화해의 개념이고 전통교회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속죄의 보혈에 의미가 있기에 같은 용어가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죄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나오는 또 다른 개념은 자유의지에 대한 것이다. 미셔널 처치가 성육신적으로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개념은 인간이 전적 부패한 존재라는 칼빈주의적 개념과 달리 어느 정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펠라기우스적 생각에서 나온 개념인 것이다.

툼 라이트가 주장하듯이 하나님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되셨고 하나님이 왕이 되셨다는 사실을 선포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즉 그리스도의 나라를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서)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감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 시켜나가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인간이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에서의 죄에 대한 인식과 차이를 보이는 펠라기우스주의에 가까운 것이다.

전통적 신앙에서 고백하는 죄는 아담의 범죄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것이기에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셨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에 참여할 수 있는데 반하여 새 관점에서 인식하고 있는 죄는 단순히 “역기능”과 “장애”일 뿐인 것이고 이는 우리의 노력과 훈련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다면 전통적 관점으로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인데 반하여 새 관점에서는 우리가 죄를 짓기에 죄인이 되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연습과 훈련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 하지만 전자의 경우는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 것이고 오직 성령의 전적인 도우심을 의지하는 것이다.

결국 우리의 공로가 있을 수 없는 것인데 반하여 새관점에서는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가고 공로에 의하여 구원받는다라는 펠라기우스주의적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미셔널 처치로서 성육신적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공로를 이루기 위한 삶이 되는 것이다.

미셔널 처치 운동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공동체가 톰 라이트의 저서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톰 라이트의 저서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이러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도는 성령이 우리의 주체가 되어서 성령에 의한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과는 전혀 다른 개념의 삶이고 이는 바로 우리가 어떠한 상태의 죄인이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떠한 것인가의 차이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전통적 교회에서의 생활이 구원받은 자로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면 미셔널 처치의 생활은 구원 받을 자로서 예수님을 본받는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f. 믿음보다는 제자도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신앙고백 후의 성도의 삶은 자신의 옛 자아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것이고 대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하며 자신은 아무 선도 행할 수 없는 죄인이기에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충성(faithfulness)하는 삶을 살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삶이어야하는 반면 새 관점에서는 은혜로 공동체에 참여하는 자격을 얻었다 하더라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공동체에 참여한 일원으로서 성실히 일을 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지는 것이다.

톰 라이트가 자신의 저서(Simply Jesus)에서 언급하였듯이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묻는 말에 가장 간단히 대답한다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하시는 분이라고 언급하였듯이 새관점을 기초로하는 미셔널 처치의 방법론으로는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도의 삶을 교본으로 하여 자신이 주체적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는 또 다른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며 새 관점에서는 율법조차도 은혜의 원리로 해석하면서 자신들은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이 아니라고

항변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힘에 의지하는 펠라기우스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전통적 교회들이 부패하며 윤리가 실종되어가는 현재의 상황에서 새 관점과 이머징 미셔널 처치가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새 관점에 의한 삶이 윤리적인 삶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 관점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다면 윤리를 얻으려다가 구원을 놓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g. 교회의 의미

전통적 교회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아담의 죄로 인한 나의 죄를 사함 받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함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례를 받음으로서 참여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인데 반하여 새관점에서의 교회는 구속사역과는 관계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하나님께서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심으로서 우리의 왕이 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서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는 교회라는 개념보다는 공동체라는 개념이 더 적합하기에 미셔널 처치라는 용어보다는 미셔널 커뮤니티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특히 “하나님의 선교” 개념에서의 교회는 개혁주의에서 생각하는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몸 된 교회라는 개념보다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언약을 전하기 위한 수단과 과정이기에 교회 자체에 최종적인 의미와 형태를 부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으로서의 선교적 교회는 이스라엘의 언약 공동체와 특성을 같이하고 있는 것이기에 결국 미셔널 처치는 유대교에 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로서 WCC가 개발한 “하나님의 선교” 개념의 의도하는 목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h. 세례의 의미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개혁주의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아담의 죄로 인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고백함으로써 내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음으로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일원이 되고자하는 의식임에 반하여 새관점에서의 세례의 의미는 이스라엘로 제한되었던 언약백성의 공동체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희생(보혈의 의미가 아님)되심으로서 이스라엘의 죄 값인 바벨론 유수(the Exile)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공동체의 문이 자신에게 열릴 수 있었음을 믿는다고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공동체에 참여하는 신분(identity)을 획득하는 의식인 것이다. 새 관점에서 세례를 통하여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언약백성의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신분이 주어졌다는 것이지 전통교회에서 말하는 칭의 개념의 구원이 아닌 것이다.

하지만 새관점과 같이 하나님나라를 현세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세례라는 성례 자체를 (현세적 하나님나라에 들어가는)구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새관점과 미셔널 처치에서는 성령으로 거듭나야하는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현세적으로만 보고 있기에 단순히 회개와 더불어 육체적 세례를 통해서 (Identity를 얻는 것과 같이)

현세적 하나님나라에 들어감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베드로가 진정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인한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듭남으로서 가능하였다는 사실을 보면 새관점이나 미셔널 처치는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의 베드로의 상태를 (이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상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속죄의 피흘림이 없이는 불가능하였다는 사실을 볼 때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성경적 진리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고 성령 세례가 없는 육체적 세례만으로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새관점과 미셔널 처치가 세례를 통하여 현세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더라도 최종적 구원을 선을 행함에서 찾는다면 이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대신하는 행함이 되기에 결론적으로 새관점과 미셔널 처치는 개혁주의 신학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

i. 예배

예배의 형태에 관하여는 미셔널 처치가 개혁주의 교회와 비교될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일 것이다.

개혁주의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이 세상과 구분된 장소에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인하여 의롭다고 구별된 자들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께 구별된 시간을 드림으로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일 것이다.

이러한 예배의 형태에는 물론 아직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참석할 수도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이 참석할 수도 있지만 그들은 단지 참관자(observer)일 뿐이지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께 드러질 수는 없는 것이기에 예배는 믿는 자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것이다.

하지만 미셔널 처치는 개혁주의 교회와는 달리 예배가 드러지는 시간과 장소, 사람의 구분이 없으며 오히려 예배를 선교적인 관점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드러지는 것을 권장하고 있기에 성경에서는 어떻게 예배가 드리지기를 원하는지 살펴봄으로서 미셔널 처치의 예배형태를 평가해 보고자한다.

예배의 시작을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출애굽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 것이 최초의 예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예배드릴 수가 없었고 출애굽을 하고서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에 앞서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것이다.

출애굽을 하였다는 것은 세속사회로 상징되는 애굽과의 구별을 의미하였기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세속과의 구별이 필요하였음을 알 수 있는 사건인 것이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세속의 더러운 것에서 구별되시고 분리되신 분으로서 죄로 오염된 우리의 상태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고서야 섬김을 받으셨던 것은 거룩에 참여하고자하는 사람은 속된 것으로부터 분리되어야만 하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출애굽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다고 할 수 없고 다만 거룩하신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한 첫걸음일 뿐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경계를 정하시고 그 경계를 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서는 자는 사람은 물론이고 짐승도 죽음을 면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의 경계마저도 무너뜨리는 작업을 하심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다. (그 길이 바로 피의 제사이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길이 되셨던 것이다. 하지만 새관점에서 말하는 언약은 피로 완성되는 과정을 생략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심으로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 성막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은 시내산에서의 하나님과 사람과의 만남의 사건을 구체적으로 삶의 한 가운데 실현시키신 것이다. 이는 삶 속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피의 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하지만 죄라는 문제가 인간이 다스릴 수 있는 것이었다면 단번에 드러지는 영원한 제사가 필요 없었을 것이다.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였던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인간의 능력으로는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경험을 통해서 깨닫도록 하고자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죄라는 문제는 다스릴 수 있는 가벼운 것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불가항력적인 것이면서 동시에 인간은 죄를 다스릴 수 없는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인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함으로서 오직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면서 그리스도의 보혈은 어쩔 수 없는 유일한 선택이면서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끔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로 예배는 세속과 분리가 되어 드러져야 한다.

하지만 미셔널 처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출애굽을 하였던 것과 같이 예배의 첫 번째 조건인 분리가 없다. 미셔널 처치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에서 출발하여 교회를 최종 목적지로 보고 있지 않기에 세속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로 모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미셔널 처치는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흩어지는 성육신적 교회이기에 세속의 영역 속에서 세속에 속한 사람들과 같이 예배를 드린다. 분리의 의미를 가진 거룩의 개념이 없는 행위인 것이다.

마치 출애굽을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려하거나 시내산에서의 경계를 무시하고 거룩한 땅을 밟는 행위이면서 동시에 보혈이 없이 성소의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행위인 것이다. 꼭 예배를 드리려한다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함 받은 자들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하며 다만 불신자들이 참여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을 깨끗이 준비한 후에야 시내산에 모일 수 있었던 것과 같이 그들을 준비시켜야 할 것이며 예배의 시간이 전도나 교제의 시간과는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분리의 문제는 전통적인 개혁주의를 바탕으로 미셔널 처치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팀 켈러의 리더십 장로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피의 제사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미셔널 처치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에만 의존할 뿐 언약을 완성 시키는 피의 제사가 없다. 그들이 믿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에 대한 희생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인간이 탐욕과 우상숭배, 심지어는 이스라엘이 로마 황제를 우상으로 섬긴 것과 같이 이 세상을 섬기는 죄를 용서하기 위한 십자가를 믿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성

소에서 흘리는 피의 제사와 연관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생활의 청산과 연관 시키는 것이다.

새관점이 해석하는 유월절의 의미는 출애굽하기 전날 애굽에서 문설주에 바른 피로 인하여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피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의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수 있었듯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 이스라엘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서 당할 수밖에 없었던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구원하기 위한 상징으로 해석한다. 보혈의 의미를 떡의 의미로 왜곡되게 중심이동을 시킴으로서 전혀 다른 해석으로 십자가를 믿는 것이다. WCC의 “하나님의 선교” 개념으로 구약을 해석하기에 이스라엘을 선교적 공동체로 보는 잘못된 해석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잘못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셋째로 삶의 현장 한가운데 있으면서 동시에 삶의 현장에서 구별되는 거룩한 영역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미셔널 처치에서는 성소의 개념마저도 무너뜨리고 있다. 이스라엘의 삶의 현장 한가운데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막이었다. 신약에서는 지리적 구별보다는 영적인 구별을 중요시하지만 미셔널 처치에서는 삶의 현장 한가운데 있는 성소마저도 선교적 개념이 없는 모이는(attractional) 교회로 해석함으로써 예배를 스포츠센터나 나이트클럽이나 아니면 직장이나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참 좋고 신선한 면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보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분리의 개념이 훼손될 수 있으며 거룩한 교회가 세속과 구분되는 분리의 개념이 완전히 없어지게 될 것이다. 성막이 이스라엘 회중 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과 구별이 되었듯이 예배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과 구별되는 가운데 드러져야 되는 것이다.

전통적 교회에서의 드러지는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고 부수적으로 믿는 자들의 신앙의 향상과 믿지 않는 자들에 전도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미셔널 처치에서는 전통적 교회와 달리 선교를 제 일차 목표로 하고 있기에 모든 예배의 형식과 용어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배려하여 재조정되어있고 예배 자체를 미셔널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기에 예배의 형태에 있어서 전통적 교회와의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j. 죄의 문제 해결 없는 회복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는 단지 영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제는 물론이고 생태계의 회복까지도 포함하는 광범위한 윤리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에 “하나님의 선교” 개념으로 정책을 수행하는 WCC는 단순히 기독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각국의 정치 경제를 포함한 모든 문제에 관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아담의 죄로 인하여 죄인이 된 인간들에 의하여 이차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개념이 없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생태계의 파괴는 죄의 문제(아담의 범죄, 가인의 살인, 노아시대 사람들의 타락등)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인간의 죄의 문제를 그릇되게 해석하고 있기에 이러한 단순한 윤리적 행위를 통하여 생태계의 근본적인 회복이 가능할지 의문이 간다.

새 관점에서의 현세적 하나님 나라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

고 우리는 죄의 종이 되었기에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과 성령의 주권적 역사가 없이는 죄를 다스릴 수 없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죄의 종노릇한다는 사실은 죄의 문제가 자신이 주체가 되는 윤리의 문제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톰 라이트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델이라고 말하지만 인간은 자기 힘으로 죄를 다스릴 수 없다는 사실을 간과한 무지에서 나온 생각인 것이고 이를 실천에 옮기려는 미셔널 처치의 방식은 마치 쓰나미를 손으로 막으려는 것과 같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k. 그리스도와 안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안식에 들어가게끔 하는 것이다.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더 이상의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다. 다른 말로하면 쉼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개혁주의에서 구원받은 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성령이 주체가 되시는 성화의 과정이고 이는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 나가야 할 과제는 아닌 것이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대속 되었기에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이다. 안식일을 범한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도전이었기에 율법에서는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반면에 미셔널 처치에서 말하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기에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의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다. 대신에 또 다른 요구가 주어지는 것이고 결코 쉽이 될 수 없는 또 다른 일을 요구하는 것이다.

교회의 머리되시고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는 우리가 들어가야 할 안식의 장소이지만 미셔널 처치에서 주장하는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공동체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지도 않고 그리스도와는 관계없는 공동체인 것이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서 안식일을 지킴으로서 자신들의 의를 이루려고 했던 잘못을 범하였듯이 미셔널 처치에서도 자신들이 들어간 공동체에서 자신들의 노력과 수고로 스스로 의를 취하려고 하는 유대인과 같은 방식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생각하고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공격했던 어리석은 유대인들과 같이 현재의 전통적 교회가 복음을 잘못 이해하였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부정하는 새관점과 미셔널 처치가 유대인들과 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새관점에서는 예수를 믿고 (현세적)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그들이 믿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은 결코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그들에게 임하였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선교”라는 미션을 요구하는 곳이 되었고 이는 결코 안식의 장소가 아닌 것이다. 그들의 주장은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기에 이 하나님나라에서는 오직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나라는 이 땅에 있는 나라만을 말하고 있지 않다.(히11:16)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안식을 하늘의 예루살렘인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의 도성에 예비하고 계신 것이다. 반면에 미셔널 처치에서는 은혜로 하나님나라에 들어가고 공로로 최종 구원에 이르기 위해 결코 안식의 개념이 적용될 수 없는 시간과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일을 하셨고 이러한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만이 이미

안식에 들어갔다고 말할 수 있기에 안식의 개념에 있어서 미셔널 처치와 전통적 교회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4. 결론

미셔널 처치가 개혁주의 교회와 이렇게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된 원인은 톰 라이트와 같이 성경을 명제적 진리가 아닌 네러티브로 기록되었다고 보면서 각 시대적 상황에 맞게 성경을 상황화(contextualization)하여 해석하여야한다는 논리의 결과로 나온 것이다.

WCC는 이 상황화의 논리로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상황에 맞추어 “하나님의 선교” 개념을 적용할 수 있었고 데이비드 보쉬의 “선교신학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역사적 예수 연구”의 결과로 “바울에 관한 새 관점”등의 결과물들을 도출해 낼 수 있었던 것이고 “이머징 미셔널 처치”는 이러한 상황논리에서 나온 개념들의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이 모든 현상들은 제 1, 2차 세계대전을 겪은 후에 인류의 화합과 평화공존이라는 논리로 일반인들에게 더욱 지지를 얻는 모양을 갖추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가장 큰 인류의 비극은 바벨탑을 쌓으려는 인간의 죄성과 같이 모든 문제를 인간중심적으로 해석하면서 인간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단절이라는 더 큰 문제를 낳음으로서 시작되는 것이다.

“이머징 미셔널 처치”와 “바울에 관한 새관점”은 하나님의 모든 생각을 아시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한 결과가 아닌 인간의 상황 논리 가운데 “역사적 예수 연구”라는 실존주의적인 인간의 논리로 성경을 해석함으로써 성경을 심각하게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전통적 개혁주의 교회가 “이머징 미셔널 처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교회의 성장이 감소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돌파하고자하는 것일 수 있으나 “이머징 미셔널 처치”는 WCC의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라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에서 나온 것이기에 개혁주의를 포기하지 않고는 선택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최근 북미에서는 미국 장로교회(PCA)를 중심으로 한 개혁주의 교단 가운데 몇몇 교회들이 “바울에 관한 새 관점”(NPP)을 받아들임으로서 “페드럴 비전”(Federal Vision 혹은 Auburn avenue theology)이라는 교회 형태를 만들어 가고 있지만 이들의 모습은 명백히 이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에 이들에 대한 명칭을 어떤 예비뉴 이단(Auburn Avenue Heresy)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 페드럴 비전의 신학이 “바울에 관한 새관점”(NPP)과 거의 유사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한국의 개혁주의 교단의 교회들은 이와 같은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성직자와 성도들이 다같이 “바울에 관한 새관점”(NPP)이 무엇이고 개혁주의와 어떻게 다르며 이를 바탕으로 형성된 “이머징 미셔널 처치”가 무엇인지 사전에 정확한 정보를 인지하고 있어야할 것이다.

참고문헌

- Faith of Leap, The: Embracing a Theology of Risk, Adventure & Courage (Shapevine)
Alan Hirsch, Michael Frost 2011
- Missional Spirituality: Embodying God's Love from the Inside Out
Roger Helland, et al 2010
- Untamed: Reactivating a Missional Form of Discipleship (Shapevine)
Alan Hirsch, Debra Hirsch 2010
- The Forgotten Ways: Reactivating the Missional Church
Alan Hirsch, Leonard Sweet 2006
- Missional Communities: The Rise of the Post-Congregational Church (Jossey-Bass Leadership Network Series) - Reggie McNeal 2011
- Missional Church: A Vision for the Sending of the Church in North America (Gospel & Our Culture)
edited by Darrell L. Guder 1998
- Introduction the missional church - Alan J. Roxburgh and Scott Boren 2009
- The missional church in perspective - Craig Van Gelder & Dwight J. Zscheile 2011
- Report of the Special Committee to Study the New Perspective on Paul: a report adopted by the 259th synod of the reformed church of the United States.
An explanation of the new perspective on paul for friends of covenant theological seminary
Dr. Bryan Chapell, president and professor of practical theology,
covenant theological seminary
- Justification and the New Perspectives on Paul: a Review and Response
Guy Prentiss Waters, P&R Publishing, 2004
- Paul in Fresh Perspective
N. T. Wright, Fortress Press Minneapolis, 2009.
- Simply Jesus: A New Vision of Who He Was, What He Did, and Why He Matters
N. T. Wright, HarperCollins, 2011.
- How God Became King: The Forgotten Story of the Gospels.
N. T. Wright, HarperCollins, 2012.
- 하나님의 칭의론, 기독교 교리 칭의론의 역사
앨리스터 맥그래스 지음, 한성진 옮김, CLC, 2008
- 새로운 교회가 온다 - 마이클 프로스트, 앨런 허쉬 저, 지성근 역, ivp.
- 선교적 교회론 - 신현수지음, CLC
- 아직 끝나지 않은 길 - 레슬리 뉴비긴, 홍병룡 옮김, 복있는 사람, 2011.